

LCD패널, 2년만에 반토막 신세

40-42인치 212달러로 200달러 위협 ... 모니터 · 모바일폰용도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가격이 보름 단위로 산정될 때마다 최저치를 갈아치워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가 고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LCD 패널 9월 후반기 가격은 PC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모바일폰용, 태블릿 PC용 모두 하락했다.

40-42인치 풀HD TV용은 9월 후반기 212달러로 9월 전반기(215달러)보다 3달러(1%) 내려앉아 최저치를 또 갱신했다.

2010년 1-4월 340달러에 달했으나 8월 말 295달러로 300달러 벽이 깨졌고 4월 말 232달러까지 떨어진 후 5월 237달러로 반등했으나 팽팽한 줄다리기를 끝에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2010년 초보다 127달러 급락했고 1개월 전(237달러)과 비교해서도 25달러 떨어진 것으로 200달러 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TV용 패널도 4월 말 317달러까지 떨어진 후 5월 초 320달러로 반등하면서 본격 회복세에 들어가는가 싶었으나 7월 후반기 315달러, 8월 전반기 310달러, 8월 후반기 294달러로 300달러 선이 깨진 데 이어 9월 전반기 287달러, 9월 후반기 280달러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초 500달러와 비교하면 220달러 빠져 반토막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46인치 TV용 패널은 2010년 초 447달러에서 계속 떨어져 7월 말 300달러 벽이 무너진 데 이어 8월 초 296달러, 8월 말 288달러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PC 모니터용도 유럽 수요 부진으로 20인치용이 8월 말 64달러에서 9월 초 62달러, 9월 말 61달러로 하락했다.

노트북용도 모든 사이즈에서 2% 일괄 하락했고, 모바일폰용은 2인치용이 5월 말 5.05달러, 6월 말 5.00달러, 7월 말 4.99달러, 8월 말 4.98달러, 9월 말 4.96달러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저작권사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1>